

‘젊은 혁신추진위’ 띄운 민주 “날렵한 개혁이 이재명 정신”

대학생 대거 수혈 출범식
국회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
지역구 청년 의무 공천 등 강구

9일 더불어민주당 ‘정당 혁신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특히 2002년생 대학생 등이 포함된 젊은 외부인사를 대거 수혈하며 ‘젊은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마포구의 한 공연시설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위는 향후 6개월간 정당개혁 과제 등을 논의하며 주기적으로 결과물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시작된 국회 정개특위에 제안할 대안, 대선 과정에서 제시할 정치개혁 과제 등이 주요 발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30대 조선장경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30대 당 대표가 나올 수 없는 정당, 역동성 없는 정당, 민심과 달리 진정성 잃은 정당,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국민의 신뢰도 당원의 지지도 없다”며 “완전히 국민에게 맞춘 과감하고 날렵한 개혁이야말로 민주당의 역사이며 이재명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정당, 시스템 정당으로 발전해 온 민주당은 이제 2022년 데이터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정책 속의 과정의 경험 축적, 정당 인재 육성 데이터 구축, 데이터 기반 국민 소통 강화라는 3대 원칙이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자 정당 운영의 패러다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특히 당을 젊게 변화시키고 기득권을 없애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국민을 낚는 국회를 논의하겠다”며 “의원 3선 연임 초과 제한으로 기득권의 벽을 허물겠다. 동일 지역 3선 이후 당내 신인에게 길을 열어주고, 전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가운 스테이지에서 열린 ‘정당혁신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지역에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30 가산점 50%, 전 지역구 청년 의무 공천을 즉각 적용해야 한다”며 “흐르기도 전에 마르는 자 원으로는 새 물길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으로 특권의 장막을 거두겠다”며 “지도부 선출 방식 개편으로 민심의 독을 터뜨리겠다. 대의원 1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는 비대칭 구조는 민심을 가로막는 독을 견고히 쌓을 뿐”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원인을 제공한 보궐선거에 대한 무공천 원칙을 다시 세우고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반성 및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위원 22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명이

외부인사로 채워졌다. 스포츠비즈니스를 전공하는 2002년생 대학생 김여진 씨, 유튜브로 활동 중인 1990년생 지경훈 씨, 인터넷 마케팅에 일하는 1990년생 오성일 씨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1970~80년대생 교수와 작가, 변호사 등이 외부 위원으로 합류했다.

당내 인사로는 김승민 민행매 운영역 황은하 의원 등이 추진위원을 맡았다.

최연소인 김여진 위원은 “젊은 세대를 나이로 잘라 어린 존재로만 보는 견해가 부서지고 새로워질 길 희망한다”며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진심을 보여주는 정치가 제가 보고 싶은 정치”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5·18 망언’ 노재승, 국힘 선대위원장 사퇴

과거 발언들로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이 9일 자진 사퇴했다.

지난 6일 공동선대위원장에 공식 임명된 지 사흘 만이다. 발언 논란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당 안팎에서 사퇴 압박이 커지자 결국 자진 사퇴 형식으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노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성 당시 상황과 이유와 관계없이 과거에 제가 작성했던 거친 문장으로 인해 상처 입으셨을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밝혔다. 그는 발언 논란에 대해 “해명보다는 인정과 사과를 해야 했지만, 아직 될 지란 저의 마음의 그릇은 미처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유권자 위치로 돌아가 제가 근거리에서 확인한 윤석열 후보의 진정성을 알리며 정권교체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노씨는 ‘오전까지만 해도 그만둔다고 하지 않았

는데 심경 변화에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계속 불거지는 상황에서 직을 유지하며 해명 활동을 한다던 제 명예 회복을 위한 이기적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어 “오직 윤 후보 당선과 국민의힘 집권을 위해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당의 권고보다는 저의 판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37세 청년 사업가인 노씨는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는 유세 연설로 이름이 알려져 이번에 선대위에 전격 영입됐다. 그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구 선생, 정규직 등과 관련한 과거 SNS 글이 당 안팎의 비판을 받으면서 사퇴 논란이 휩싸였다.

노씨는 과거 SNS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대한민국 성역과 1대장”이라고 표현했고,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선 “김구는 국밥 줘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고 발언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남 30년 숙원 의대 신설 부정?

‘전남대 의대 분원’ 주장
당 지도부 지원 방침과 배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남의 30년 숙원인 전남대 의대 설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재경광주전남 향우회를 찾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더는 호남 출신이 나오지 않겠다”고 언급한 뒤 전남공공의료 강화 방안을 묻는 말에 “의대 신설이 아닌 ‘전남대의대 분원’ 설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9일 관련 논평을 내고 “윤석열 후보의 전남대 의대 분원 설치 제안은 ‘꿈’ 공약이자 노골적인 호남 출신 배척”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도당은 “윤 후보의 ‘전남대 의대 분원 설치’ 발언은 전남공공 의료 설립을 사실상 배척한 것”이라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180만 전남도민의 염원과 정면 배치되는 짚수로 노골적인 호남 무시 말발”이라고 직격했다.

도당은 “대선을 앞두고 ‘서진 정책’, ‘호남 포용’을 외치면서 실제 행동은 ‘호남 무시’를 밥 먹듯이 하는 국민의힘과 윤 후보의 이중적 행태는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개사과’와 다를 것이 없다”고 했다. 민선 7기 들어 전남공공 의료 신설에 드라이브를 건 전남도는 윤 후보 측 발언을 접하고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불과 한 달 전인 지난달 4일 광주에서 가진 국민의힘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1 건의사항으로 의원을 요청한 것이 전남공공 의료 설립이었고 김기현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등은 한목소리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화답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은 “윤 후보가 어떤 맥락에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확인 중이다. 아마 지역 현안을 제대로 보고 받지 못해서 나온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된다”며 “이달 중 공개하게 될 당 차원의 전남지역 공약에는 전남공공 의료 신설이 담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유시민 “이재명, 정치적 생존 위태로울 정도 하자는 없어”

정치비평가 활동 재개... “이 후보는 발전도상인·과제 중심형”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해 “이런저런 작은 오류는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만큼의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 후보를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로 ‘생존자’를 꼽은 뒤 “진짜 문제가 심각하게 있으면 못 살아남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산악화 시대를 죽지 않고 건너온 생존자”라며 “2010년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수사가 많이 받고 기소도 당해서 대법원까지 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정치적으로도 생존자에 가까운 경로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의 또 다른 키워드로는 ‘발전도상인’과 ‘과제 중심형’을 제시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볼 때 완성형이 아니다”라며 “여전히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대통령들은 대부분 완성형 대통령이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미완성이라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 재직 시에도 늘 번민하며 정책을 폈다. 발전도상인이 맞다”고 견주기도 했다.

이날 인터뷰를 통해 유 전 이사장은 정치비평가

로 활동을 재개했다. 그는 지난해 4월 중순 자신의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정치평론가로서 은퇴를 선언한 바 있다. 활동 재개와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은 “그때 사고도 좀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1년 반 넘게 쉬고 나니 다시 기운도 좀 났다”며 “본격 재개는 아니고, 글 쓰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기회가 있을 때는 좀 하고 그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캠프와는 오해 출연에 대해 아무 소통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 “현재 이 후보 선대위에 있지도 않고, 앞으로 안 있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정부의 직책을 받을 일도 없고, 또 그가 속한 당에 후보로 출마할 일도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육상레저스포츠 진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 국회의원이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육상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9일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4개, 매출액은 4만4294억원에 달한다. 특히 암벽등반, 반지점프, zip라인(Zip Line) 등은 전체 레저스포츠산업 매출액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러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육상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설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병훈 의원은 “레저스포츠 관련 법령상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상 및 처리에 관한 분장 해결방안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레저스포츠 이용자가 적절한 조치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법률 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육상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지원해 육상레저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일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3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담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아파트 상가 매매 2억 9,000만원

1,500세대 독점상권

- 물건: 나주 이노시티 예시양 아파트
- 전용면적: 32.76㎡ [10P]
- 매매가: 29,000만
- 부가세: 1,100만 원급

[주]초록공간
010-6786-2600

산행안내

12월12일(일)
▲광주K산악회 12월12일(일) 강원도 춘천, 삼악산645m(주봉 용화봉, 청운봉, 동선봉)&남이섬, 트레킹산행, 염주체육관03:30, 동아병원03:35, 롯데백점03:40, 광주역03:45, 문예후문03:55, 비엔주차장04:00 *다음카페 광주 K산악회 ☎ 010 7794 6920

나주시 공고 제2021-1626호

나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131-3번지 일원 및 가남지구역주백조항 코오롱하늘채 아파트 혁신도시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10.
나 주 시 장

구분	구호	면적(㎡)	지점	중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신설	중로 2	10-15	점선도로	429	석전리 121-2 (석전지구 경계)	석전리 131-7 (혁신도시 경계)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62.8	점선도로	637	중로 1-12호선	금천면 동지역 경계
변경	소로 2	262.7-8	점선도로	538	석전리 336-1 (중로 2-8호선)	석전리 420-1 (금천면 동지역 경계)	일반도로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장소: 나주시 도시과 및 금천면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1. 12. 10.(금) - 12. 29.(수)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열람장소 직접 또는 전자우편(jyw9821@korea.kr)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061-339-8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례군 공고 제2021-0998호

지리산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구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산동면 관산리 일원 지리산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관광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되는 구례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 공고합니다.

2021. 12. 10.
구례군수

□ 위치: 구례군 산동면 관산, 좌사, 탐정, 대평리 일원 □ 면적: 1,501,230㎡
□ 주요 변경내용

구분	변경 내용
토지이용 계획 변경	□ 여관부지 전용도로 신설 및 상생농산물 판매도로 폐지, 주차장 면적 변경
	□ 상가 및 어린이유치시설, 레저스포츠시설 면적 변경
시설배치 계획 변경	□ 케이ابل 위치변경 및 경관녹지 폐지
	□ 일반휴게시설, 가족휴양시설에 편입
지구단위 계획 변경	□ 관광호텔을 여관에 편입
	□ 숙박시설(호텔, 가족휴양시설) 건축을 중수 변경

■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 도로: 소로 3개소 신설, 소로 1개소 변경, 소로 3개소 폐지
□ 주차장, 공회, 녹지, 하천 면적변경
■ 기구 및 화지에 관한 사항
□ 여관용지 및 상가용지 획지구획 수립
□ 분할 및 합병허용(단, 분할 후 잔여면적은 660㎡ 이상)
■ 건축물에 대한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여관용지에 한하여 관광펜션 허용

2.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2021. 12. 10.(금) - 2021. 12. 23.(목)(14일간)
□ 열람장소: 구례군청 문화관광실
□ 열람내용 및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주민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3.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구례군청 문화관광실로 서면 제출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청 문화관광실(061-780-2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정106 평생교육법위반
- 피고인: 김성복

위 피고인은 평생교육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증거없음에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21년 12월 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사 강지성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방**

광고문의 (062) 227-9600 신문구독 (062) 220-0551 예약구독 (062) 220-0550